

“윌리엄스, 2군도 맡아라” 조계현, 파격인가 파괴인가



조계현 단장

KIA, KBO 10개 구단 첫 코치진 개편... 1·2군 통합 관리 기대와 우려 지도자 데뷔 이범호에 2군 총괄코치 맡겨... 현장 역할 보장 과제로

동반 성장을 부르는 '파격'일 될 것인가 팀을 흔들는 '파괴'가 될 것인가.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린 4일 포스트시즌과는 상관 없는 KIA 타이거즈가 화제의 팀이 됐다.

이날 KIA는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코칭스태프 개편안을 내놓았다. 마무리캠프 훈련 도중 코치진을 정리해 논란을 자초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발 빠르게 조직을 새로 짜다.

시기도 시기지만 그 내용이 화제였다. 핵심은 퓨처스 감독제 폐지, 퓨처스 총괄코치 제도 도입이다. 그리고 총괄코치 자리에 이범호의 이름이 오르면서 KIA의 개편이 팬들은 물론 야구계 내부에서도 '핫이슈'가 됐다.

파격적인 변화다.

KIA는 '육성'을 전면에 내세워 개편을 이야기했다. 윌리엄스 감독이 1군과 퓨처스 선수단을 통합 관리한다는 설명도 했다. 앤서니 코치가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1군과 퓨처스를 한데 아우르면서 성과와 육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이다.

이범호를 전면에 내세운 부분도 파격적이다. KBO리그에서 놀라운 성적을 쌓았고, 일본리그에서 설움도 겪으며 그라운드에서 많은 것을 이룬 그는 '타이거즈 캡틴'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 선수들의 신임도 두둑하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빅리그에서 지도자 경험도 쌓았다.

젊은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최근 KBO리그 분위기를 보면, 변화가 필요한 KIA를 바꿀 적임자로 보인다.

하지만 표면적인 모습과 달리 야구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크다.

윌리엄스 감독이 1군과 육성까지 책임지는 구조라는 게 구단의 설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다.

KIA는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고, 첫 시즌을 6위로 마감한 윌리엄스 감독은 내년 시즌 성적을 육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군 구성만으로도 고민이 많다.

외국인 감독 특유의 성향도 변수다. 빅리그에서는 선수단 구성은 구단의 몫, 주어진 자원으로 현장

을 운영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취임식에서도 윌리엄스 감독은 "내부 FA(안치홍, 김선빈)에 대해 구단과 교감을 나눴나?"는 질문에 "선수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수동적인 대답으로 '빅리그' 스타일을 보여줬다.

이날 선수단 대표로 인터뷰를 했던 최형우가 "구단 대표님께서 치홍이와 선빈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하던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다.

윌리엄스 감독이 주도하고 이끄는 동시 성장이 아닌, 구단 일방적인 흐름 속 육성도 성적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연·지연이 만연한 문화에서 중책을 맡은 '40살' 이범호 총괄 코치의 어깨도 무겁다. 특심 있게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타이거즈의 2021시즌은 물론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

파격적인 조직 개편이 나오면서 선수 출신 단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과 이범호 총괄코치 사이에서 조 단장의 비중이 커진 모양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처음 약속했던 조계현 단장의 3년 임기는 끝났다. 구단은 재계약에 대해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는 하지만 조 단장은 파격 개편을 지휘하면서 이미 '시즌 2'를 그리고 있다.

타이거즈 첫 선수 출신 단장으로 기대했던 것은 현장을 잘 이해하고 그만큼 선수단이 최고의 전력으로 그라운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앞선 3년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

임창용 기용과 방출 과정에서 논란을 키웠고 그 여파는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김기태 감독이 오히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두 번째 시즌도 시끄러웠다. 세 번째 시즌에도 FA 논란으로 팬들의 원성을 샀다.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스타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안치홍·김선빈과의 협상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고, 협상과정에서 다른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선수단 내부가 뒤숭숭했다. 코로나 시국에 강원도 총선 캠프를 방문해 팬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기대했던 선수단 통합에 실패했고 육성 선수 영입 과정에서의 잡음, 특정 선수에 대한 개인 코칭 등으로 현장에서도 뒷말이 나왔다.

KIA는 2009년과 2017년 우승의 여운을 살리지 못하고 있던 시행착오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파격적인 시도에도 내년 KIA가 해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명품 구단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새 시대에 맞는 구단의 확실한 방향 설정과 현장의 책임 있는 역할 보장이 중요한 선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다시 시작”

오늘부터 1·2군 마무리훈련

2년 연속 '가을 잔치'에 실패한 KIA타이거즈가 6일부터 새 시즌을 준비한다.

6일 함평-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신인선수와 퓨처스 선수들이 먼저 출발선에 서고, 16일에는 휴식을 끝낸 1군 선수들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새로운 경쟁을 시작한다.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의 마무리훈련은 20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퓨처스 선수와 프로 데뷔를 앞둔 2021년 신인 선수 36명이 참가한다. 함평 캠프 선수단은 챔피언스필드 클럽하우스에서 합숙하며 체력·기술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다.

시즌 종료 후 휴식을 보내고 있는 1군 선수들은 16일부터 30일까지 챔피언스필드에서 마무리 훈련을 소화한다.

광주 캠프 선수단은 포지션별 맞춤형 체력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을 진행한다.

함평 함평 캠프 마무리 훈련을 시작하는 이정훈·한준수(이상 포수) 박민·홍종표(이상 내야수), 김연준·오선우(이상 외야수)는 16일부터는 광주캠프로 이동해 훈련을 이어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마라도나, 왜유를”

메시, 뇌수술 회복 기원 메시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최근 뇌수술을 받은 '아르헨티나 축구영웅' 디에고 마라도나(60)에게 안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는 5일(한국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마라도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디에고, 세상의 모든 힘이 함께하기를! 우리 가족과 나와 하루빨리 건강하게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가슴으로부터 큰 포옹을 보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올해 환갑을 맞은 마라도나는 지난 3일 만성 경막하혈종 진단을 받고 뇌 혈전을 제거한 뒤 회복 중이다. 경막하혈종은 머리를 다친 뒤 출혈이 생겨 뇌경막 아래 피가 고이는 증상이다.

마라도나의 수술 소식을 접한 메시는 직접 SNS를 통해 안부를 물으며 '레전드'를 향한 존경심을 표현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간판스타와 사령탑으로 '사제의 장'을 맺은 메시와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축구 영웅으로 사랑받고 있다. /연합뉴스



“나는야 거미손” 콜롬비아 밀로라리오의 골키퍼 후안 모레노가 4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칼리의 데포르티보 칼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코파 수다메리카나 경기에서 상대 콜롬비아 데포르티보 칼리의 슛을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금호고 선후배 U-19 대표팀서 호흡

광주 FC 허율, 지난해 U-18 득점왕...신승훈 FIFA U-17 주장 활약

프로축구 광주FC의 유망주 허율과 금호고의 신승훈이 U-19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춘다.

이들은 지난 4일 발표된 대한민국 U-19 대표팀 28인 명단에 올랐다. 광주유스 금호고 출신인 허율(FW·19)은 올 시즌 프로에 뛰어들어 '광주의 미래', 신승훈(GK·17)은 지난해 FIFA U-17팀 주장으로 활약한 '특급 기대주'다.

193cm 장신의 허율은 강력한 피지컬을 이용한 포스트플레이어에 해당, 침착한 마무리가 돋보이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다.

지난해 K리그 U-18 챔피언십 득점왕(7골) 출신으로 2019 전국고교 왕중왕전 최우수선수에도 오른 등 고교무대를 평정하고 올 시즌 프로에 직행했다.

또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꾸준히 활약하면서 2019 판다컵, 2020 AFC U-19 챔피언십 조별예선 등에서 5경기 3득점을 기록했다.

2019 FIFA U-17 월드컵에서 팀의 주장이자 든든한 수문장으로 맹활약한 신승훈은 180cm·79kg로 골키퍼로서는 작은 체격이지만 동물적인 반사신경이 눈에 띄는 재목이다. 2019 FIFA U-17 월드컵



허율

신승훈

에서 팀의 주장이자 든든한 수문장으로 맹활약하며 팀 8강 진출에 기여했다.

이번 소집은 코로나19로 내년 상반기로 연기된 2020 AFC U-19 챔피언십 준비를 위해 마련됐으며, 훈련은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전남 별교생태공원축구장에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시상식’ 광주 FC는 조연

‘MVP’ 전북 손준호·‘영플레이어상’ 포항 송민규

대상 시상식과 함께 K리그1의 특별했던 2020 시즌이 마무리됐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K리그1은 완주에 성공했다. 그리고 5일 서울 스웨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을 통해 도전의 시즌을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전북의 리그 첫 4연패를 이끈 손준호가 MVP로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섰고, 포항의 공격축구를 이끈 박기동 감독이 감독상 주인공이 됐다. 생애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영플레이어상은 포항 송민규 품에 안겼다.

전북 중원을 지킨 손준호는 올 시즌 그라운드 결합 성공(75개), 차단(171개), 획득(291개), 중앙 지역 패스(1122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장거리 패스 성공(219개·2위), 태클 성공(33개·2위) 등 공수 모든 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2골 5도움도 기록했다.

김기동 감독은 K리그 우승, 준우승팀 이외의 팀에서 감독상을 차지한 첫 인물이 됐다. 공격축구가 박기동 감독의 수상을 이끌었다.

포항은 올 시즌 56골을 터트리면서 2위 울산

(54골)을 따돌리고 최다득점팀이 됐다. 또 포항은 화력을 앞세워 3위에 오르며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했다.

올 시즌 27경기에서 나와 10골 6도움을 올린 송민규는 12개 구단 감독 12표 중 9표, 주장 12표 중 8표, 미디어 115표 중 92표를 가져가면서 광주FC 임원상을 따돌리고 영플레이어상 수상자로 단상에 섰다.

수원에서 울산으로 이적한 홍철은 2년 연속 FIFA온라인4 유저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K리그에게 돌아가는 'EA Most Selected Player 상'을 받았다.

◇K리그1 대상 수상자

▲K리그 MVP : 손준호(전북) ▲K리그 감독상 : 김기동(포항) ▲K리그 영플레이어상 : 송민규(포항) ▲베스트11 FW : 주니오(울산), 일류첸코(포항) ▲MF : 세징야(대구), 손준호, 한교원(전북), 팔로세비치(포항) ▲DF : 강상우(포항), 권경원(상주), 김태환(울산), 홍정호(전북) ▲BEST11 GK : 조현우(울산) ▲K리그 최다도움상 : 강상우(포항) ▲K리그 최다득점상 : 주니오(울산)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